

뉴트로 열풍에...MZ 세대 취향 저격한 '진격의 할머니얼'



홈플러스 모델이 '할머니 감성'을 담아 만든 보해양조·설빙의 협업 제품 '설빙 인절미순희' 막걸리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보해양조·설빙 협업 '인절미순희' 막걸리 홈플러스 기획 상품 발탁 롯데백화점 코로나 맞물려 명절 인기선물 2년 연속 건강식품 1위 젊은세대 먹거리·패션 사로잡아...팔췌빵·옥수수도 다시 진열대에

새로운 복고(뉴트로) 열풍에 할머니 감성을 담은 '할머니얼' (할매+밀레니얼)이 대세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른 입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식품이 각광받는 한편 '할매' 취향을 내건 식품들이 젊은층으로부터도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 첫해인 지난 2020년 광주지역 건강보조식품 신용카드 구매액은 318억원으로, 전년(303억원)보다 5.0%(15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건강식품의 호황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면역력을 증진하는 경향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020년과 2021년 설 명절 선물 인기 상품 순위를 내보니 2년 연속 건강기능식품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설 명절을 앞뒀던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지난해 12월30일부터 1월25일까지 홍삼제품 등 건강상품군 매출은 전년 명절보다 5.2% 증가하기도 했다.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은 '할매 감성'과 찰떡궁합을 보이며 문화계는 물론 유통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품은 75세 배우 윤여정과 70·80대 '할머니 배우'들이 극장가와 방송가를 흥행무진 누비면서다. 이들이 활약하기 이전에도 꽃무늬카디건이나 블라우스, 긴 주름치마는 이미 '할미룩' 외에 '그레니룩'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20·30대 여성들의 옷장을 점령했다. 커피 전문점들은 귀리(오트) 라떼나 흑임자 케이크와 같이 건강을 고려한 곡물 음료와 디저트를 속속 내놓고 있다. 편의점과 빵집에서도 우리나라 전통 간식인 인절미와 떡볶이, 떡갈떡, 팥떡 등이 진열대 앞에 자리잡았다. 보해양조와 디지털전문점 설빙이 할매 입맛을 반영해 함께 만든 '설빙 인절미순희' 막걸리는 지난해 25일부터 전국 135개 홈플러스 점포에서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 이 제품은 전통적 간식 재료인 콩가루와 100% 우리쌀이 만나 고소한 인절미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홈플러스는 판매를 기념해 2개 구매하면 1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장주현 홈플러스 차주류팀 바이어(구매 담당자)는 "장립 25주년을 맞아 차별화 기획 상품으로 할머니얼을 겨냥한 '설빙 인절미순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MZ세대(밀레니얼+Z)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제품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 열풍을 이끈 초당 옥수수의 인기로 힘입어 공차코리아는 같은 해 7월 해남군 특산물인 초당 옥수수를 활용한 '초당옥수수 음료 3종'을 출시했다. 이달 들어서는 커피빈코리아가 '초당 옥수수 크림 라떼'를 내놓으며 MZ세대 입맛잡기에 나섰다. 이마트가 지난해 6월 옥수수 구매 연령층을 분석해보니 20·30대 구매 비중은 39.6%로, 전년 비중(27.4%)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30대 연령층 구매 비중(35.8%)이 40대 구매 비중(29.9%)을 넘어선 것이 눈길을 끌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할머니얼 세트'를 겨냥해 지난해 내놓은 홀 그레인 오트 음료는 구매 연령대의 70%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음료를 구매하는 3명 중 1명은 30대 여성(33%)이었다. 판매 시간대는 오전 7시~11시가 30%, 오후 3시~7시 30% 등으로 하루 종일 고른 분포를 보였다. 스타벅스는 커피에 대한 부담 없이 든든하면서도 간편한 식사나 간식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음료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분기 화장품 '맑음'·자동차 '흐림'

대한상의, BSI 조사 업종별 경기전망 엇갈려

국내 제조기업들은 올해 2분기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유·석화과 자동차·부품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6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BSI는 전분기(89)보다 7포인트 오른 96으로 집계됐다. 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수출 증가세 지속과 방역 규제 완화에도 새 정부 출범 기대감이 더해져 BSI가 반등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험 요인도 여전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화장품(123), 전기장비(110), 의료정밀(107), 제약(103), 기계(101), IT·가전

(101)의 전망이 기준치를 넘었다. 반면 원자재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비금속 광물(85), 정유·석화(91), 자동차·부품(93), 철강(98)과 코로나19 여파가 남은 식음료(96), 인력난을 겪는 조선·부품(99)은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들이 2분기에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원자재 가격'이었다. 응답 기업의 82.5%(복수응답)가 위험요인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수침체'(51.4%),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33.0%),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28.1%),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법안 시행'(24.1%) 등의 순이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익이 줄거나 적자도 돌아선' 기업들의 대응 수단으로는 68.5%가 '인력·경비 등 비용 절감', 47.3%는 '가격에 상승분 반영'이라고 답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 현안을 묻는 항목에는 '규제완화'를 꼽은 응답이 57.3%, '최저임금제 등 노동제도 개선'이 56.9%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신입·경력 각각 세자릿수 채용

R&D 인재 확보 나서

현대차가 대규모 R&D(연구·개발) 인력 채용에 나섰다. 현대차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신입·경력 채용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는 신입 채용을 통해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솔루션 ▲모빌리티 솔루션 ▲로봇 솔루션 ▲솔루션 기획 등 5개 부문에서 세 자릿수의 인력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력 채용의 경우 비주요 개발 프로세스를 포함해 xEV 차량 및 전자 전력제어·아키텍처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차량 성능개발 ▲수소연료전지 ▲전동화-배터리 ▲비추업차량개발 ▲전자 시스템

▲기술경영·표준특허 ▲로보틱스 등 7개 분야에서 세 자릿수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 채용에서는 필수 유관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가 공인언어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입 채용설명회는 다음달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들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현대차 및 연구개발본부에 대한 소개를 받고 모집 전형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채용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도 한다. 현대차는 작년과 같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다음달 6·7일 신입 채용 지원자 대상 상세 직무 설명회도 실시한다. 신입 모집 대상 자격은 국내외 학사 및 석사 학위 취득자 또는 올해 8월 졸업예정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RCEP 활용 지원

광주본부세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을 추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 자격 신청사, 간이인증 신청서 및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인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4종만 제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로도복권 (제100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1	30	31	41	4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267,377,910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2,854,222	97
3	5개 숫자일치				1,470,935	2,826
4	4개 숫자일치				50,000	141,072
5	3개 숫자일치				5,000	2,311,009

광주은행, '톡톡 자문단' 6기 발대식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고객 10명으로 구성된 '톡톡 자문단' 6기 발대식을 열고 앞으로 9개월 동안 고객참여 경영활동을 논의했다. 지난 2017년 1기로 시작한 자문단은 총 130건의 의견을 실제 경영정책에 반영했다. <광주은행 제공>

중기공제기금, 지역 중기·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도움

광주·전남 1500여개 업체 이용 지자체도 대출이자 일부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공제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5842억원이 조성돼 현재까지 1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이용업체는 총 1만7000여개로, 광주·전남에서는 1500여개 업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거래처 도산으로 매출채권 회수

가 곤란하거나 지연되는 등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기금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수요도 증가했다. 지난해 총 대출 실행액은 4795억원으로, 전년(4596억원) 대비 199억원 증가했으며, 올 1월에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한 87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자체에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과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업체에 대해 대출이자의 일부(1~3%포인트)를 지원해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공제부금은 매월(3~5년)까지 일정금액(10만~300만원) 납입, 4회 이상 납부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만기 도래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면 장려금 이자도 매분기 지급한다.

중기중앙회는 공제부금 한도를 1억8000만원으로 상향, 신용대출 금리 평균 0.3%포인트 인하, 개인기업 비대면 대출액을 부금의 1.5배까지 확대했다. 또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과 연계한 대출도 운영 중이다. 노란우산에 3년 이상 가입한 고객은 공제기금 납부액의 10배(최고 2000만원)의 금액을 즉시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올해 시중 금리인상, 대출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협력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6-9988, 교환2번)나 광주전남지역본부 전화(062-955-9966)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위기...인수대금 납입못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서 인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쌍용차 노조와 상거래 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수대금까지 미납되면서 쌍용차가 이달 안으로 인수·

합병(M&A)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이달 25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

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도록 했다.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4월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25일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내야 했다. 쌍용차는 이달 말까지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할 뒤 법원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